이 보고서는 국토통일원 73년도 상반기 학술용역에 관한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1973. 6.

연구기관 충남대학교 동서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책임자 송 병 학

위 원 오 덕 균

홍 덕 창

금 선

남북접촉에 따른 산업시찰단 및 자원조사단에 관한 연구

정치적 측면에서 1

李 宣

경제적 측면에서 19

吳 德 均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41

洪 德 昌

南北接触에 따른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에 関한 研究

-政治的 側面에서-

琴 宣

1. 序　　論

지난 1972年은 4半世紀동안 分断된 韓半島에 統一을 向한 새로운 歷史的 転機를 마련한 해이다. 70年代의 国際情勢의 추이와 이에 따른 韓国問題의 性格変化는 分断4半世紀를 軍事対決로 一貫해온 南・北関係를 止揚하고 対話와 平和的인 接触에로의 転換을 追求하게 하였다. 즉 70年 8月 15日 朴大統領이 平和統一構想을 밝힌 「8・15宣言」을 계기로 南・北間의 対話를 위한 通路가 모색되었으며, 그 結果 27년간 断切되었던 南北간의 障壁을 뚫고 南北赤十字会談과 南北調節委員会란 두개의 対話通路가 트이게 되어 이제 離散家族 再結合을 위한 人道的 次元에서 부터 祖国의 平和統一을 위한 政治的 次元에 이르기까지 모든 分野에서의 協商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制限된 範囲이기는 했지만 南北間에는 상당한 数의 人的交流가 있었고 이에 따라 南北의 関係改善과 緊張緩和에도 큰 進展이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어쨌든 7・4 南北共同声明 이후 南北関係는 「対話없는 対決에서 対話있는 対決」로 転換되었고 그것은 相互接触을 所望하는 意思決定에서 起因된 것이며 또한 誤導된 民族史를 바로 잡으려는 意志의 表現이었다. 祖国統一을 위하여 自主・平和的 方法과 思想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 民族的 大団結을 도모해야 한다는 三大原則을 천명하고 있는 南北共同声明은 6・25와 같은 同族相残의 참화를 다시는 이 땅위에서 再発되지 않도록 미연에 防止하고 南北은 善意

의 競争과 対話를 通해 平和的으로 祖国을 統一해야 한다는 「8·15宣言」의 結実이며 民族的 良心의 勝利로서 国内外的으로 절대적 환영과 支持를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南北対話가 곧 南北交流가 아니며 또한 南北交流가 곧 統一이 아니기 때문에 南北의 対話나 交流가 手段이지 決코 目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対話」의 意義는 27年間 거의 接触의 通路가 막혔기 때문에 派生된 誤解와 不信을 청산하고 民族統合을 위한 共通分母를 찾아보자는 試図이며 한편 「交流」의 意義는 統一에 対한 期待와 実際사이의 갈등을 「交流」와 「協力」의 次元으로 유도함으로써 南北은 「実利」에 一次的으로 만족하면, 동시에 交流의 깊이에서 自然発生的으로 期待되는 統一与件造成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朴大統領은 1972년 1월 11일 大統領 年頭記者会見에서 「統一問題란 念願이나 渇望만으로 쉽게 이룩되는 것은 아니다. 제일 先行되어야 할 일은 北韓으로 하여금 武力赤化 統一政策을 포기케 하는 것이며 그 길은 우리가 国力을 길러 모든 면에서 北韓보다 우월한 立場에 서는 것」이라고 統一을 위한 国力培養의 重要性을 강조하였다. 問題는 祖国의 平和統一을 단순한 民族의 念願이나 当為의 問題로만 볼 수 없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냉엄한 現実로 直視하여 그 解決点을 模索하여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南北간에 터 놓은 対話의 通路를 充分히 活用하여 이제까지의 두터운 不信의 障壁을 무너뜨리고 同質的 基盤을 拡大시켜 相互間에 漸進的인 調和를 模索해 나가는 過程에 대두될 南北交流의 諸般 項目 즉 非政治的 学術交流, 言論交流, 体育交流, 技術交流,

物資 및 用役交易, 芸術交流, 視察団交換, 政党社会団体間의 会合, 宗教交流, 観光自由化의 実現등을 냉철하게 分析 評価하여 対話와 接触을 通한 協商過程에서 「이니시어티브」를 잡고 南北間의 緊張緩和와 祖国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達成시킬 수 있는 多角度의 協商戰略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赤十字会談과 南北調節委員会의 活動을 通한 몇차례의 南北間 対話와 接触의 경험으로 보아 北韓은 一切의 協商手段을 그들의 南韓赤化統一이라는 高度의 政治的 目的 達成을 위한 戰略의 一環으로 展開하고 있음을 간파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協商戰略의 拡大進展에 따라 北韓은 人的交流를 包含한 多角的인 交流項目을 提案하여 이를 政治的 協商으로 誘導하려고 意図함이 분명할 것이다. 여기서 人的交流라 함은 1971年 4月 12일 발표한 許談의 「8個項統一方案」의 7項이 명시하는 全面 人事往来를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鉱山이나 漁業을 共同開発한다는 등의 名分으로 韓国의 失業者를 交流한다는 등 그들의 政治的 目的에 利用될 提案은 단호히 排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따라서 本稿는 앞으로 南北協商 段階의 進展에 따라 提起될 商品交流 其他 経済的, 社会的, 文化的 交流를 위하여 附随되는 人的交流라는 측면에서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交流可能性 및 그効果와 構成에 関한 方向을 提示하고자 하는데 目的이 있다.

Ⅱ.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 交流의 可能性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에 関한 問題는 当然히 南北間 一般経済交流의 範囲와 段階 内에서 考察하여야할 것이다. 따라서 経済交流의 段階的 進展에 따라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交流可能性에 関한 論理的 根拠를 찾아야 할 것이다. 現代의 国際経済 또는 内国経済現象을 通해서 보면 여러가지 経済交流의 内容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普遍的인 概念을 통하여 羅列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註1)

① 財貨의 相互 売買, 交換을 말하는 交易

② 技術의 提供 또는 指導를 말하는 技術協力

③ 資金의 貸与 및 企業化를 위한 投下를 가르키는 資本去来

④ 政治・外交的 目的下에 発生되는 経済援助

⑤ 経済活動에 関한 第2次的 相互支援을 위한 情報交換을 말하는 経済機構의 派遣

⑥ 前記의 모든 活動에 必須的인 要素로서 随伴되는 経済人士의 往来

이상에 羅列한 交流内容 가운데 우리의 경우는 南北経済交流 段階의 如何에 따라서 部分 또는 全面交流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어느 交流이던지 반드시 関連 経済人士의 附随的 交流가 뒤 따름을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南北経済交流도 그 段階의 如何에 따라서 展望에 関한 많

은 差異点이 発見될 수 밖에 없다는 論拠에서 그 拡大段階를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註2)

第1段階(非公式交流段階)—— 公式的인 交流政策이 決定되기 以前에 贈物交換,密交易,原産地証明 廃止 등으로 財貨의 流出入이 主로 偶発的으로 일어나는 水準.

第2段階(一般交易段階)—— 交易이 正式으로 認定되나 交易当事者間에 最恵国待遇와 같은 何等의 特別協定없이 一般 貿易制度속에서 交易만이 実現되는 段階.

第3段階(経済協定段階)—— 当事者間의 特別協定을 通하여 交易의 相互増進이 図謀되고 部分的인 資本去来(短期信用)가 許容되는 水準 (現在 北韓과 日本사이에 発生되려고 하는 関係에 該当)

第4段階(経済協力段階)—— 모든 経済外交機能이 発揮되어 交易,援助, 資本去来,情報交換,人事往来가 既存 経済体制 그리고 特히 関税制度를 原則的으로 維持시키는 条件下에서 最大規模로 発生할 수 있는 状態.(韓·美 또는 韓·日間을 参照)

第5段階(経済機能統合段階)—— EEC와 같이 経済体制 또는 関税制度의 部分的 決定権을 統合機構에 委任하여 両地域間의 綜合的 経済利害得失을 考慮하여 経済交流의 政策을 決定하고 그 施行管理를 直接 担当하는 政治的 統一이 이루어지기 以前의 最高 交流水準.

第6段階(完全統合段階)—— 勿論 政治的 統一이 実現되는 경우 南北経済交流는 内国経済의 交流와 同一한 水準으로 到達하리라는

것은 너무도 自明하다.

本是 経済交流란 各 国家間의 政治的 差異에도 不拘하고 特定한 制度条件下에서 最大의 経済的 効果를 얻어 経済力의 強化를 通해 政治目的의 達成(例를 들면 国民生活 水準의 向上)에 寄与코저 하는 것이므로 純粋한 経済的 課題로 認定할 수 있으면 있을 수록 그 成果는 多大한 것이 됨이 틀림 없다. 이러한 角度에서 볼때 南北経済交流는 本質的으로 経済的 課題이며 따라서 이에 関한 理論的 考察은 主로 経済学的인 것이어야 함이 当然하다. 그러나 現在 南北間에 展開되고 있는 対話의 本質的 性格은 両地域의 体制나 理念, 支配権力層을 完全히 달리하고 있다는 点에서 政治的인 것임을 否認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로 인한 対話의 帰結로서 出現되는 모든 交流도 源泉的으로 政治的 性格을 内包하고 있다는 것은 疑心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南北交流의 内容이나 段階的 側面에서 그 어느 것이나 交流에 必須的으로 随伴되는 関連 経済人士의 交流는 南北韓이 다같이 不可避한 与件이라 하겠다. 다만 北韓의 경우는 経済交流를 交流의 主体가 民族이건, 祖国이건, 또는 国家이건 간에 経済的 利害得失은 고사하고 純粋한 政治的 統一目的 達成을 위한 前哨作業으로서의 統一促進의 方案으로 実現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与件이 成熟되면 그들의 政治協商化의 試図로서 오히려 経済交流의 具体的 実現段階가 앞 다가올 可能性이 없지 않다.

經濟交流를 위한 南北協商段階의 漸進的 拡大 進展에 따라 具体的으로 交流의 時期, 方法 및 內容이 設定되어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 順次的으로 經濟交流를 위한 協商機構와 交流의 範囲 및 会談場所가 考慮되어야 함은 当然하다.

여기서 協商構構는 純粋한 民間団体로서 代表됨이 効果的일 것임으로 貿易人 및 經濟人 代表로 構成하되 仮称 南北韓經濟交流委員会 등을 構成함이 所望스러운 것이다. 勿論 交流의 範囲도 初期에는 制限된 商品去来로 부터 시작하여 協商進展에 따라 段階的으로 拡大하여야할 것이나 이도 또한 感情이 따르는 雜多한 論争의 씨가될 人的交流보다는 比較的 期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問題点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즉 南北韓經濟交流의 対象品目이 単用消費財가 아니고 耐久消費財나 工作機械일 경우 서로 計器가 다르므로 輸出用으로 다시 生産하지 않는限 쓸모가 없어 現実的으로 交流의 意義가 없을 것이다.(註3) 또한 単用消費財라 하더라도 이의 交流로 인하여 그들의 体制安定에 어떠한 衝擊的 波及効果를 미친다면 그들이 순순히 応할리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具体的 政策的 配慮로서 南北經濟交流의 対象品目으로 選定했다 하더라도 品目마다 両体制의 価値観의 差異에서 야기되는 交流阻害要因들은 다같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協商過程의 進展 如何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難点을 克服하고 直接 南北韓商品의 交流段階에 이를 수도 있는 일이 겠지만 오히려 直接 商品交流라는 段階에 앞서 相互 商品에 関한 情報의 交換 등을 위한 一種의 商品展示가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되면 当然히 商品展示에 関한 節次가 必要하게 되고 이에 따라 商品展示의 規模, 対象品目의 内容 및 観覧者의 構成과 数的 問題가 合意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北韓은 実際 交流와는 関係없는 이른바 그들의 共産主義 経済力을 誇示할 수 있는 商品을 戰略的으로 展示하여 例의 政治的 宣伝効果를 意図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韓国은 구태여 回避할 必要없이 組織対 組織의 対決이란 側面에서 積極的인 対応措置를 講究하여야 함은 勿論 特히 그 어느 경우에나 北韓이 意図하는 産業情報를 철저히 防衛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南北間의 対話와 接触이 進展되어 同質的 基盤이 拡大됨에 따라 段階的으로 南北交流에 接近하게 된다. 따라서 対話와 接触 및 交流의 過程에서 会談을 위한 人的交流는 勿論 交流活動에 따라 必須的으로 随伴되는 人的交流는 漸進的으로 拡大될 것이 期待된다.

궁극적으로는 南北経済交流의 段階로서의 商品展示 過程에 이르게 되면 그 観覧者의 数와 質如何에 따라서는 一種의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으로 看做할 수 있는 것이니 여기서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交流 可能性의 論拠를 찾을 수 있는 것이며 従来 南北赤十字会談의 北韓代表団은 正確히 말한다면 赤十字人이라기 보다 精選된 対南工作員集団이었다는 경험으로 보아 이와 같은 論拠는 더욱 뒷받침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人道主義的 次元에서의 赤十字会談에서 보다는 보다 政治的 宣伝効果와 政治協商化로의 期待

가 可能視되는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에 高度로 훈련된 対南工作員集団을 包含시켜 그들의 政治的 戰略目的을 達成하기 容易하다고 判断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人道的 次元에서의 離散家族 찾기 会談의 完結을 보기 전에 이와 같은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交流가 앞서 提起될 可能性도 없지 않다.

Ⅲ.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構成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交流 可能性은 南北経済交流의 段階가 進展 拡大됨에 따라 漸増할 것이며 状況의 変動 如何에 따라서는 오히려 余他의 交流項目에 先行하여 提起될 可能性이 농후하다는 点과 그들의 協商提議나 反応은 철두철미 高度의 政治的 戰略의 一環으로 展開된다 함은 既述한 바 있다.

이제 純粋한 南北経済交流의 段階的 拡大로 指向해야할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交流問題가 北韓에 의하여 政治的 協商戰略의 一環으로 提議되거나 反応될 경우에 対処하여 이의 合理的 構成方案을 模索코자 한다.

既述한 바와 같이 南北経済交流의 段階的 進展에 따라 協商架橋 役割을 担当할 橋梁集団의 構成이 不可避하게 된다. 따라서 橋梁集団으로서의 協商機構 및 団体의 構成은 어디까지나 民間「베이스」에서 純粋한 貿易人 및 経済人代表로서 構成함이 効果的

일 것이다. 왜냐 하면 対話와 接触 및 交流過程에서 北韓이 意図하는 두개의 韓国像 浮刻을 阻止하고 이에 따른 그들의 国際協力을 相対的으로 弱化시킬 수 있으며 協商戰術로 提起될 수 있는 諸般論争点을 弱化시키는데 能率的일 수 있기 때문이다. 橋梁集団으로서의 協商機構 및 団体에 의하여 経済交流에 関한 拡大合意를 이루는 過程에서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交流問題가 段階的으로 提起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当初 本 交流의 架橋 役割을 担当한 協商機構의 人的 構成員과 本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構成員間에는 많은 部分的 重復이 있을 수 있다는 点을 考慮하여야할 것이다.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構成問題가 具体化하면 両側의 合意内容에 따라 当然히 交流의 対象인 北韓側의 構成 与件에 相応할 것이 考慮되지만 韓国은 「멤버」構成을 위한 별다른 要件을 必要로 하지 않는 까닭에 이에 対한 政策的 配慮는 그렇게 어려운 問題만은 아닐 것이다. 이에 対하여 北韓은 具体的으로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構成員에 対한 政治 및 技術 訓練의 必要上 赤十字会談 過程에서 보여줬던 바와 같은 지연 戰術을 露呈시킬 것도 豫想되는 것이다.

현재 韓国은 純粋한 民間 経済人団体로서 韓国経済人聯合会, 韓国貿易協会 및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会 등이 있으며 그외에 半官半民의 貿易振興公社가 있다.

따라서 橋梁集団으로서의 協商機構 「멤버」는 이들 民間 経済人団体中 共同으로나 或은 単独으로 参与할 수도 있겠으나 特히 産業視察団이나 資源調査団의 경우는 可能하다면 이들 民間 経済人団体의

代表를 総 網羅하는 편이 보다 効果的일 것이다.

北韓이 앞으로 예상되는 南北貿易에서 새로운 機構를 만들는지 或은 形式上 民間機構로 되어 있는 国際貿易促進委員会안에 어떤 特別委員会를 다시 만들는 지는 모르지만 (註4) 이들이 使用하는 機構名称도 考慮해야할 課題라 하겠다.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構成에 있어서 民間 貿易人 및 経済人団体의 代表 外에 学界 및 関係機関의 専門家로 構成되는 諮問機構의 設置가 반드시 附随되어야 한다.

일단 構成된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이 合意된 内容에 따라 活動을 開始하게되면 서로 相異한 目的的 次元에서 産業視察 및 資源調査에 競争的으로 臨하는 関係로 産業情報面에서 格別한 保安措置가 必要하게 된다. 그 外에는 自由競争下의 自己 創意로 경륜을 쌓아온 韓国이 모든面에서 決定的으로 有利하다고 判断되므로 南北交流를 위한 協商戦略으로서 多角度로 提議해 볼만한 課題인 것이다.

Ⅳ. 結　　論

南北韓은 本質的으로 統一에의 接近方式을 달리해 왔기 때문에 統一問題의 解決은 고질화 되어 왔다.

北韓은 그동안 韓半島의 共産化統一 이라는 武力革命戰略아래 戰爭準備를 持続하는 한편 이른바 「南朝鮮革命」을 完遂하고 南韓에 세워질 「人民政府」와 統一을 達成하거나 또는 外軍撤收, 南北協商을 통해 韓国人끼리 統一問題를 解決할 것을 提議하는 2重戰略을 취해왔다. 이와 같은 戰略은 北韓의 最高政策 目標의 基調를 이루는 것이므로 經済的 側面에서도 例外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北韓은 모든 経済政策 및 経済計劃의 表面上의 転換 또는 修正에도 不拘하고 南北経済交流에 있어서는 金日成体制의 拡張으로 要約되는 政治事業을 優先的으로 推進하는 것이 基本的인 立場이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南北経済交流의 必要性을 対内外에 強力하게 主張하면서도 実質的인 協定에 到達하는 데는 相当한 期間을 遅延시키고저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政治事業의 一環으로 展開될 것이 豫想되는 南北経済交流라 하더라도 마치 그들이 政治事業을 하기 위하여 人道主義를 標榜한 赤十字会談의 家族찾기 運動에 呼応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理致에서 可能한 것이다.

이렇게 볼때 北韓은 交流範囲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経済人士(資格制限을 加하지 않은)의 往来를 비롯하여 経済情報의 交換 및 経済援助 등을 重要한 内容으로 提議할 것이 분명하다.

한편 南韓의 立場을 보면 純粋한 経済的 目的만을 追求하여도 南北経済交流의 効果는 充分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南北交流는 純粋한 国際交易 또는 国際協力 原則下에서 推進하기를 바라고 또 이를 위한 準備가 이미 完了된 것이라고 보아도 無妨하다. 따라서 交流内容의 範囲에 있어서는 먼저 交易, 技術協力, 情報交換 등에 置重코저 할 것이며 将次 資本去来까지도 進展을 볼 余裕를 갖고 있다. 그리고 経済人士의 往来는 格別한 交流項目으로 設定할 必要없이 一般貿易関係人士의 往来에 準하는 措置로서 満足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本質的으로 相異한 基本立場을 가진 南北韓이 経済交流를 대두시키기 위해서는 相対方의 目的達成은 容納하지 않으면서도 自体의 目的은 達成할 수 있는 方案을 講究하고 서로 合意에 到達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 点에서 経済交流의 難点이 説明될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南北韓이 本質的으로 相異한 基本立場에서 南北経済交流를 模索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経済交流의 一環으로서 提起될 資某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指向하는 交流方向도 서로 相異한 것은 明確한 事実이다.

어떠한 側面에서의 南北交流이든 간에 本質的으로 政治的 性格을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서로 政治的 効果를 意図할 것임은 当然한

論理라 하겠다. 따라서 產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경우도 例外일 수 없으며 그럴수록 政治的 次元에서 냉철한 分析과 評価가 加해져야 할 것이다.

바야흐로 韓国의 統一政策은 緊張緩和냐 統一追求냐 하는 切迫하고도 本質的인 両者択一의 局面에 当到하고 있다. (註5)

緊張緩和와 統一追求는 다같이 바람직한 것이니 同時的으로 志向해야 옳을 것이나 적어도 論理的으로는 成立될 수 없는 일이다. 緊張緩和란 強大国間이라면 直接衝突回避의 다짐으로 可能하나 分断国의 緊張緩和란 分断凍結밖에 다른 方途가 없으므로 分断凍結과 統一追求를 同時的으로 내세울 수 없게되는 것이다.

統一이 相互間 主権을 認定하는 和解에 의한 聯邦制 統一일 수 없고 同質的 統一을 意味한다면 相互間의 平和的 競争으로 体制의 優越性의 実証에 의한 吸収統一의 길 밖에 없을 것이다. 統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측의 民主統一과 北韓측의 共産統一의 不可相容的인 날카로운 対立뿐이다. 요컨대 統一이란 相対方의 抹消를 必須要件으로 하며 따라서 対話를 通해 自体의 消滅을 받아드린다는 따위의 事態進展이란 想像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平和的인 協商등으로 이루어질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統一追求는 緊張의 緩和아닌 激化를 초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쨋든 南北間의 障壁에 対話의 通路가 트임을 계기로 우리는 「自由의 바람」을, 北韓은 「革命의 바람」을 각각 相対便에 불어넣으려 試図하는데 이것은 저마다 体制維持上 重大한 試練일 것이며

궁극적으로 相互間의 平和的 競爭에 의한 体制 優越性의 競爭으로 帰着될 것이다. 共產主義者와의 平和와 対話의 条件은 「힘의 均衡」 이므로 対話가 進行中이라도 힘의 均衡이 깨지면 언제든지 実力 発動의 誘惑을 느끼게 될 것이니 体制安定과 総力安保가 이러한 時期일수록 더욱 必要하다는 論拠가 된다.

한편 対話나 接触 및 交流에 있어 우리의 主体性을 살려 「이니시아티브」를 持続해 나가는 誘導의 条件은 智慧와 忍耐뿐이니 한편으로 北韓측과 그 背景의 内部変化의 可能性을 展望하고 다른 한편 우리의 実力培養과 状況整頓을 내다보면서 時間의 経過라는 要因이 우리에게 有利하리라고 하는 判断에 立脚하는 것이다. 그 過程에서 戰爭을 抑止하고 分断苦痛을 漸減하면서 巨視的인 統一条件 形成으로 接近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단계에서 產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을 包含하는 一連의 南北経済交流에서 크게 期待할 것도 없지만 그것을 구태여 拒否할 理由도 없다. 따라서 南北間의 產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 交流의 成果는 緊張緩和와 祖国의 平和 統一이라는 총체적인 우리의 統一志向 過程에서 検討되어야 하리라고 믿는다.

註 (1) 徐南源, 「南北経済交流의 実現을 위한 接近」, 嶺南大学校 統一問題研究所 1972. 11.
(2) 徐南源, 前掲論文.
(3) 朴喜範, 「南北経済交流의 展望」, 北韓, 1972, 9. P.105.
(4) 朴喜範, 前掲書, P.106.
(5) 朴東雲, 「南北赤十字会談에의 期待와 展望」, 국회보, 126 号.

南北接触에 따른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에 関한 研究

— 経済的 側面에서 —

呉 德 均

I. 머 리 말

70年代의 世界는 戰後 4半世紀의 冷戰史에 終止符를 적고 새로운 형태의 秩序를 수립해 나가는 和解「무드」의 막이 열렸다.

韓半島도 例外없이 7.4共同声明이후 南과 北이 武力使用에 의거하지 않고 平和的 方法으로 統一問題를 해결하자는 획기적이며 역사적인 転機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7.4 共同声明이 意味하는 平和的 対決 即 対話 있는 対決의 싹은 싹트기 시작하였으나 対話를 通한 統一은 복잡한 政治的 過程을 거치지 않고 어떤 決定的인 순간에 神秘的으로 이루어지는 歷史의 膳物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試行錯誤의 모험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挑戰과 適応의 不断한 歷史的 変遷過程속에서만 가능한 우리의 意志와 努力의 產物이라고 보아야 한다.

歷史에 있어서 未来에 대한 保障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問題들이 부닥치게 될는지도 모르며 특히 南北間의 文化的 異質性, 理念的 対立, 體制上의 差異点, 그리고 対話의 目的에 있어서 불가피한 部分的 갈등을 고려한다면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歷史的 현실자체가 그러한 対話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外勢에 의한 南北分斷은 우리 民族의 念願인 自立經濟의

확립을 늦추어 왔고 民族統一을 저해해 왔기 때문에 南北調節委員会의 構成과 機能에 관한 合意文書에 보장되어 있는 바에 의하면 이 委員会의 成果如何에 따라서는 南北間의 関係改善이 크게 進展될 것을 내다보게 된것이다.

7.4共同声明이 国家間에 합의된 条約은 아니라 할지라도 南北統一의 기초로서 합의된 協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히 지켜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北韓에 대해서도 이를 要求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努力이 対立에서 協商을 거처 交流와 協力의 幅을 넓혀 나간다면 現実的인 問題点이나 技術的인 難関이 豫想되지만 금년에 몇가지 事業을 벌일 것으로 봐도 거의 틀림없을 것이며, 経済, 文化, 学術등 몇몇 分野에서 制限된 交流와 경우에 따라서는 協力의 初期 段階로서 南北間의 産業視察団이나 資源調査団의 人的交流가 실현될 것이 豫見된다.

南北間의 違和는 아직 바탕에서 부터 심각하기 때문에 상호간 交流의 무드가 成熟되어 간다 하드라도 視察団이나 調査団의 構成이나 機能 및 活動範囲등의 合意에 이르기에는 많은 難関이 있을 것이고 더욱이 経済的인 側面에서는 戦略的인 要因이 많이 作用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것이다.

이 論題의 발표는 비록 統一의 구체적인 進行過程이 協商의 형식으로 되어 감에 따라 잠정적으로 南北間의 経済的 交流의 先行条件으로서 視察団 내지 調査団의 往来라는 段階를 갖는다 하드라도 종국에는 両体制間의 結合이 거의 불가능한 「이데오르기」의

문제가 개재하게 되고 北韓의 閉鎖主義体制가 낳은 産業技術의 落後性으로 인해 経済的 側面에서 計測한다면 도움이 될만한 것이 없다고 볼수도 있으나 北韓의 実像과 虛像을 판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実像에 接近할 수 있는 가능성과 아울러 南北間의 経済交流나 人的交流가 経済外的인 이유에 의해서 그 必要性이 인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南北韓의 産業 및 資源을 비교분석해 보면서 経済交流의 可能性과 問題点을 파악하여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실효성있는 観察을 밝혀 보고저 한다.

Ⅱ.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意義와 必要性

오늘날 급변하고 있는 韓半島와 그 주변의 情勢는 世界的인 耳目의 대상이 되고 있다. 7·4 共同声明, 南北赤十字会談, 日·中共修交등 급격한 일련의 변동은 우리들에게 급작스러운 흥분과 충격을 안겨 주었다.

이러한 흥분과 충격은 4半世紀동안 단절되었던 未知의 彼岸의 社会를 미처 吟味할 사이도 없이 露出되었기 때문에 어떤 問題가 어떠한 방향으로 흐를것인가의 그 귀추와 그 問題에 대처할 자세를 분간치 못하게 되는 수가 많이 있다.

서로가 잘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서 어떠한 名目의 交流나 往来든 간에 현실의 実体를 파악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고 長短期의 目標를 뚜렷이 세워놓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自信있게 接近해 나가야 한다.

이미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南北韓의 經濟制度와 經濟機構간에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는 상태에서 經濟交流는 과연 必要하며 또한 可能할 것인가 하는 것은 統一이라는 課題를 앞에 둔 우리로서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政治, 經濟問題인 것이다.

問題는 人的交流 ― 經濟交流 ― 經濟的 統合 내지 統一이라는 假設을 놓고 볼때 南北의 統一이라는 課題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經濟的 実利面으로 부터 接近하는 過程이 容易하고도 可能性이 짙은 方途로 보아 經濟交流의 先行条件으로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 構成에 대한 必要性의 論拠로 삼고자 한다.

特히 사람보다 物資의 交流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南北經濟交流가 人的交流에 앞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見解도 있으나 經濟交流라고 하면 財貨와 用役 資本과 技術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단 産業視察이나 資源調査 뿐만 아니라 労動力의 需給状態가 정반대인 勤労者의 交流도 제기될 공산이 크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視察団이나 調査団은 經濟交流의 一環으로써 그 構成의 妥当性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異質的인 両体制의 優劣을 결정하는 重要指標가 生産力증대와 生活水準의 향상에 있기 때문에 南北間의 政治的 軍事的인 対立抗争은 經濟的 社会的 開発競争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르며 開発競争은 南北統一에 있어서 優位를 확보하는데 있으므로 우리는 相対的 優位를 견지하면서 競争的 共存을 모색하게 되는 경우도 대비해 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南北韓의 経済交流를 前提로한 南北韓 産業視察団이나 資源調査団의 구성과 活動의 意義는 共産主義의 実像을 현실적으로 파악하여 体制가 지니고있는 開発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데 크게 寄与하리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우리側의 代表가 北韓을 찾아가 視察의 報告나 或은 北韓代表団一行이 南韓에 들어와서 취한 言動에 관한 情報의 意義를 절대로 過少評価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南北韓代表의 相互 往来는 서로를 理解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기 때문이며 特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극도로 閉鎖的인 北韓社会経済体制에 들어가 무엇인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돌아 온다는 것은 政府는 勿論 国民이 지금까지 설정했던 北韓像의 正確性 与否를 진단하는데 귀중한 資料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北韓이 南韓에 대해서 설정했던 社会経済像은 물론 南韓이 北韓에 대해서 설정했던 社会経済像도 実像보다도 虚像인 경우가 많았음은 서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한다.

閉鎖된 社会経済体制가 開放된 社会経済를 향해 설정했던 社会経済像은 大韓民国이 개방된 社会経済体制下에 놓여 있으므로 「이데오르기」的인 偏見과 政治的인 憎悪感만 불식한다면 얼마든지 実像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北韓에 대해서 설정했던 社会経済像이 虚像에 가까웠던 것은 무엇이었던 가를 考察해 보기로 한다.

첫째 北韓이 고도의 閉鎖社会経済体制이므로 情報의 엄중한 遮断에 있다.

北韓은 共産社会에서도 비밀이 많기로 으뜸가는 社会로서 自由化·民主化의 病菌전염이 무서워 60年代 이후에는 東欧圈에도 留学生마저 보내기를 꺼려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大韓民国을 향해서 부분적이나마 콤뮤니케이션의 門戸를 개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간주되었다.

이리하여 北韓은 大韓民国의 입장에서 보면 世界에서 으뜸가는 「禁断의 地域」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北韓에 관한 情報는 共産党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情報가운데 政治的 動機나 目的에서 날조된 것이 많다는 것은 세상이 共知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중 어떤것이 진실이고 허위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基準조차도 서있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둘째는 敵対的 感情과 憎悪感에서 나오는 偏頗的인 分析과 評価라 할 수 있다.

敵対하는 勢力을 미워하는 나머지 敵이 取하는 모든 行動을 나쁘게만 해석 한다는 것은 보통 人間으로서 피하기 어려운 性向이다. 더욱이 進一歩하여 敵対者의 強点을 알아보려 하지 않고 그 弱点을 발견하는데만 눈이 팔리고 敵対者의 成長하는 부분은 보지 아니하고 衰退하는 부분만 본다고 할적에 이는 분명히 위험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나의 実力은 過大評価를 원하는 나머지 敵의 실력을 過少評価하기를 원하므로써 敵의 実力을 정당하게 評하기를 기피하게 된다면 敵의 実像을 상대로 対決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제멋대로 꾸며낸 敵의 虚像을 상대로 対決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같은 対決은 일시적인 自己慰安이나 自己満足은 될 수 있을

런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自己敗北를 촉구하는 것이다. 暗黑과 秘密에 싸여있는 社会, 四半世紀를 두고 우리 国民중 누구도 말을 털어 놓고 구경할 수 없었던 社会에 대해서 설정했던 「이미지」는 独善的인 판단에 근거를 둔 觀念的인 虛像이 되기 쉽다는 점을 우리는 솔직히 是認해야 한다.

우리가 종전에 설정했던 北韓像이 北韓의 力量을 過少評価하는 경향에서 부터 北韓의 力量을 過大評価하는 경향에 이르기 까지 例를 들면 우리가 学生들에 대한 敎育은 北韓사람들의 消費生活은 형편없이 낮고 소수 特権層을 제외하고는 매우 초라한 住宅에 살며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고 가르쳤다.

1960年 쿠바事態이후 北韓이 戰争준비에 광분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経済建設이 완전히 도외시 당하고 있으며 北韓사람들의 태반이 헐벗고 굶주림 상태에 放任상태에 있다고만 생각하면 速断일 것이다.

社会主義国家가 高度 国防国家로서 軍事的 必要의 충족에 最優先的 考慮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北韓이 共産圏안에서도 軍事力 증강에 가장 集中的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集団이라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休戰後 近 20年의 세월이 흘렀고 北韓사람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重労動에 혹사당해 왔다는 사실 등을 고려에 넣는다면 北韓의 経済建設도 상당히 진척했고 衣食住에 대한 消費水準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세째 社会経済両制間의 本質的 차이의 無視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社会経済体制와 北韓사람들이 살고 있는 社会経済体制가 本質的으로 다르다는 것은 대체로 이해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体制의 차이가 共同生活의 실제에 있어서나 社会的 生産様式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알고 있는 国民들의 수효는 대단히 적다.

두 体制간의 質的差異는 生産様式에 있어서나 실제 共同生活에 노출되고 반영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따라서 自由社会에서 일어나고 있는 社会事象은 自由体制의 基準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하며 共産体制에서 일어나고 있는 社会事象은 共産体制의 기준에 의해서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에 自由体制의 経済事象을 共産体制의 尺度로서 평가하고 반대로 共産体制의 経済事象을 自由体制의 尺度로서 평가한다면 이는 無意味한 것이다.

社会経済体制가 다르면 価値意識이나 思考方式, 生活様式, 感覚基準도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이 点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우리社会를 보는 눈을 가지고 北韓社会를 보고 評価하려고 하기 때문에 갖가지 観念的인 虚像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南北関係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科学的으로 分析 비판하며 올바른 対北韓政策을 立案 実践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극히 制限된 부분에 있어서 점진적인 南北間의 接触이나 交流를 위해서도 視察団이나 調査団의 必要性을 밝혀두고자 한다.

Ⅲ. 南北韓経済의 構造的 差異에서 본 豫備的 診断

南北韓의 経済交流를 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経済成長 過程에서 얼마만한 발전과 성과를 거두고 왔으며 南北韓 経済의 構造的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를 視察이나 調査의 과정에서 予備的으로 診断해 볼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점에 着眼해 두어야 할것이다. 이미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北韓에 있어서의 主要 経済指標나 生産 및 去来実績 数値가 매년 中央統計局에 의하여 朝鮮中央年鑑에 일괄 掲載되어 왔으나 1966年 이후에는 전혀 発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의치 못한 현 실정으로서는 부득이 利用可能한 統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이하의 여러 計数도 이상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야 할것이다.

1. 重化学工業 중심의 産業構造

北韓의 経済도 그동안 生産関係의 변혁과 生産力의 총동원을 위해서 政治가 経済에 우선하는 體制, 즉 어떤 유일한 一人者의 강력한 政治目的에 복종해야 하는 政治 経済體制의 方法에 의존하고 있어 이러한 體制에 의한 集団的 生活様式은 分権管理에 의해서가 아니라 강력한 集権管理에 따르게 되는 中央集権 管理制度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北韓의 経済行為는 여러가지 手段이 있지만 특이한 것은 강제적 労動動員과 教条的 誘因등의 手段에 의해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體制와 手段에 의하여 이미 周知되어 있는 바와 같이 北韓의 產業構造는 특히 重工業分野의 製品을 대부분 軍事目的에 돌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北韓의 経済成長은 그간 軍需產業과 직결되는 重工業에 우선적으로 치중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50年대 까지는 상당한 成長을 가져 왔지만 60년대 이후에는 計劃미달로 成長은 低調하였다.

<表-1>은 北韓의 経済規模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南韓의 그것과 비교하여 놓은 1969년도의 主要 経済指標이다. 南北韓의 GNP와 人口規模는 2:1 比率이 되어 있어 1人当所得은 거의 같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比하여 経済成長에 있어서는 종래 北韓의 3個年 計劃(1954-56)과 1次 5個年計劃(1957-61)기간 동안에 南韓의 3倍가량으로 추산되던 것이 그이후로 둔화되어 1969년에는 南韓의 3분지 2로 下落하였다.

<表-1> 南北韓의 主要経済指標 (1969)

	南 韓	北 韓	1970年이후 밝혀진 北韓의 目標数值
① G N P	60.7억$	29.5억$	
② 人 口	3114 만명	1405 만명	
③ 1人当 GNP	195 $	210 $	
④経済成長率(67-69平均)	12.6 %	8.6 %	10.3%(71~6년연간목표)
⑤国内 貯蓄率	18.3 %	30.0 %	
⑥產業構造(1968年構成比)	100 %	100 %	

	南韓	北韓	1970年이후 밝혀진 北韓의 目標数値
1 次 産 業	29.4 %	18.3 %	
2 次 産 業	24.8 %	※ 64.2 %	
3 次 産 業	45.8 %	17.5 %	
⑦工 業 総 生 産	12.2억 $	19.5 억 $	
⑧工業 成長率 (平均)	24.1 %	12.7 %	14% (71~76 년 연간목표)
⑨食 糧 生 産	774 만M/T	349 만M/T	
⑩政 府 予 算	13.1억 $	23.3억 $	5.2 억 $ (72 년)
⑪軍 事 費	2.9 억 $	7.0억 $	6.8 억 $ (70 년)
⑫貿 易	24.8억 $	5.5 억 $	
輸 出	6.6 억 $	2.8억 $	
輸 入	18.2억 $	2.7 억 $	

資料 : 李昌烈 「韓半島의 分断과 統一」

그럼에도 불구하고 工業総生産額은 南韓의 12.2億달러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것은 産業構造面에서 2次産業部門이 北韓이 南韓보다 큰 構成比(64.2%)를 차지한데 연유한다고 볼수 있다.

北韓의 工業化過程의 特徵은 自由主義와는 달리 鉱業開発 - 基礎施設財工業 - 中間原資材工業 - 最終消費財工業의 단계로 逆展開되어 왔다. 때문에 近代的 工業化의 本質인 質的 高度化, 産業構造의 多様化나 聯関産業의 동시적 발전이 어렵고 軽工業製品의 상대적 低質

化와 供給不足은 국민생활의 일반적 底位性을 초래했다.

또한 世界経済의 国際化現象과의 隔離는 궁극적으로 工業化의 制約要因이 되고 있다. 例컨대 化学工業의 基軸이 되는 石油 化学工業이 전혀 開発되어 있지 않으며 石炭을 化学工業의 主原料로 개발하고 있으나 原料의 品質과 性能은 国際水準에 比해 일반적으로 劣悪하다.

技術発展에 있어서도 持続的이었기 때문에 千里馬運動을 통한 労動時間의 연장이나 労動力강화는 技術 및 設備의 近代化를 수반하지 않는 한 発展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社会主義 国家들이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는 重工業 優先政策은 그 理論的 기초를 「마르크스」의 資本의 再生産様式과 이에 의거한 「레닌」의 経済法則에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生産의 論理過程은 機械의 生産段階에서 끊어지고 最終消費의 生産段階로 연결되지 못하여 消費財生産의 構造나 그 水準이 빈약하다.

1968년에 重工業投資의 40.2%를 採取工業에 투입했고 67년에 工業総生産額중 機械工業이 차지한 比重이 31.4%에 달했다는 것은 이러한 사정을 말하는 것이다.

2. 主要生産物의 産出実績

〈表-2〉는 北傀의 主要 生産物의 産出実績과 目標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67년의 計画目標에 도달한것이 石炭뿐이라고 간주되며 그 이외의 모든것은 67년의 計画目標에 미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表-2〉 北韓의 年別主要産業(生産別)의 実績과 目標

	品名	単位	3個年計画	5個年計画	7개년 計画							3年延長		6個年(71-76)計画
			1956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목표(1967)	1970 計画	1970 実績	1976年 計画
1次産物	穀物			미발표	未発表	- 500만t	生産高가 공포히됨	(?)	1966년의 119%(?)	未発表	1966년의116%(?)	,	△500만㌧	
	水産物	천t	365	465	590	840	640	770	785	-	1,200	(1,000~1,200)	△80	16,000 ~ 1,800
	石炭	천t	3,908	10,620	11,764	13,200	14,043	14,400	17,856	(20,000)	25,000	(23,000~35,000)	27,500	50,000 ~ 53,000
2次産物	発電量	100만 KWh	5,120	9,139	10,040	11,445	11,766	12,397	13,265	(12,500)	17,000	(16,000~17,000)	16,500	28,000 ~ 30,000
	鋼鉄	천t	1,190	641	775	1,050	1,022	1,130	1,232	(1,300)	2,300	(2,200~2,500)	2,200	3,800~ 4,000
	銑鉄	〃	231	853	931	1,213	1,159	1,340	-	(1,500)	2,300	-	-	-
	시멘트	〃	597	2,285	-	2,376	2,524	2,606	2,392	-	4,300	(4,000~4,500)	4,000	7,500~ 8,000
	化学肥料	〃	195	561	661	779	853	750	713	-	1,700	(1,500~1,700)	1,500	2,800 ~ 3,000
	織物	100만 m	77	190	185	256	228	270	270	-	500	(400~ 500)	400	500 ~ 600

資料 : 朝鮮中央通信社(朝鮮中央年鑑 1968)및 1966年 党代表大会報告, 「노동신문」, 「北朝鮮年鑑」

鋼鉄의 경우 1970년에 이르러서도 67년도의 目標量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特히 製鉄과 機械工業部門에서 量과 質面에서 北韓이 앞서고 있으나 機械의 주요 部分品은 蘇聯으로 부터 輸入하고 있어 機械의 原料인 鋼鉄의 質과 機械生産 그 자체의 国産化 比率은 南北韓間에 큰 格差는 없어 보인다. 北韓은 機械工業의 바탕이 되는 綜合製鉄工場을 아직도 建設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에 浦項綜合製鉄이 완성되는 금년부터는 機械工業의 발전은 南韓이 더욱 유리해 질것은 疑心의 여지가 없다.

石油化学工業과 電子工業製品에서는 南韓이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北韓은 「카바이트」를 原料로 하는 나이론 生産에 成功하여 다급한 纖維 및 纖維製品生産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価格이나 質에 있어서 国際競争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어 精油工場 자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까닭에 石油化学工業을 作業化할 素地는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南韓이 第3次経済開発5個年計画에서 目標로 삼고 있는 重化学工業이 그 기초를 마련한다면 製鉄, 機械, 石油化学 및 電子工業製品의 産出実績面에서 전면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것이다.

3. 農業分野의 検討

北韓의 農業生産은 社会主義的 国営農場과 協同農場의 형태로 農業이 영위되고 있기 때문에 資本主義的 小農을 特徵으로 한 우리의 경우와 판이하게 다른 실정이다.

南北이 다같이 근대적 営農에 必要한 社会間接資本의 投入，즉 耕地整理，農業用水의 개발， 農路의 확충 및 개설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北韓은 農業集団化를 강행함에 있어서 대규모적인 機械化의 도입， 노력의 合理的인 이용， 土地의 利用率의 提高， 集約的 農法의 적용 등 農業生産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반요소를 集団化의 완성으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실제로 北韓은 農業의 機械化，水利化，電気化，化学化 등 4大課題를 제기하고 이에 힘을 경주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農業의 集団化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農業生産은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不振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北韓의 農業生産実績을 보면 46년부터 63년까지의 17년간 農業総生産에 있어서 6%의 成長을 보였는데 特히 3년이나 연장하여 10년간에 끝마친 北韓의 7個年計劃에서도 最終年度인 1970년에 600만톤을 생산하도록 계획되었으나 目標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実績의 가장 큰 原因은 무리한 計劃에서 오는 여러가지 病弊와 이에 따르는 農民들이 만성화하는 怠業現象 그리고 軍事費의 확충과 工業化 過程에 치중한 나머지 農業投資가 상대적으로 軽視된 때문이며 또한 農民에 대한 労力日 評価와 分配 過程에서 나타나는 모순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北韓農村에 잠재해 있는 제모순을 근본적으로 시정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農業生産은 부진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食糧不足을 일으켜 67年부터 69년까지에 약 250만섬의 '外穀

導入이 불가피했다. 다만 北韓은 示範農場으로서 国営農場은 근대적 시설이 가추어진 것으로 보이나 協同農場은 그렇지 못한것 같다.

労動党 第5次 大会에서의 보고에 의하면 農業의 化学化에 의해 1961년 부터 67년까지 7개년간에 化学肥料의 施肥量을 3.2倍로, 農薬의 살포量은 3.3倍로 증가하였고 또한 農業의 機械化에서 60년도에 80개소이던 農機械作業所가 69년 178개소로 늘어났고 트랙터台数(15原力換算)는 1960년에 12,500台이던 것이 67년에는 41,250台로, 그리고 総耕地面積중 트랙터에 의한 起耕率은 60년도의 36%에서 64년도에는 53%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国営農場에서는 트랙터와 貨物自動車의 이용은 앞서고 있으나 南韓의 경운기, 탈곡기, 분무기 등 農機械의 보급속도와 견주어 본다면 北韓農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協同農場은 南韓에 앞서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蘇聯에서의 경험으로 볼때 비록 트랙터등 外形的인 営農方式이 부분적으로 앞서 있다 하더라도 社会主義的 生産方式의 脆弱性 때문에 農業生性은 南韓에 뒤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南韓에서는 새마을 運動을 통하여 지붕개량 農路확장, 農村電化事業등 社会福祉 施設에 주력하기 시작하여 農村의 近代化가 속속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4. 資源을 중심으로한 産業立地

南北韓이 분단된지 4半世紀를 넘어 경과한 오늘날 北韓의 経済体制와 制度의 特性에 비추어 본 北韓의 産業立地 政策과 그에 따

른 立地構造上의 特徵은 다음과 같이 간추려 볼 수 있다.

첫째로 共産主義 経済体制에 따라 그들의 経済活動과 経済立地方向은 軍事的 価値라는 非経済的 立地因子에 의하여 軍需産業 志向的인 重化学工業의 計劃的 集積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둘째 経済立地因子들 사이의 優位性을 무시할 수 있고 劃一化시킬 수 있는데에서 立地를 추진 시킨다. 이러한 것은 非経済的인 것을 目標(軍事的 目標)로 하여 経済的 浪費를 가져올 수가 있다.

세째 北韓의 産業立地構造가 방대한 강제적 労動力 動員 즉 人的 資本의 강제적 動員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다는 것이다.

네째 北韓의 産業立地政策이 軍事的 政治的 目的을 위한 立地로 변모하여 온것은 北韓의 全国土 要塞化政策에 따라 北韓에 있는 重工業(特히 機械工場) 및 化学工業이 主로 武器와 弾薬生産을 가능하도록 計劃되고 있다는 데서 연관된 것이다.

北韓의 既存工業立地地区의 변모를 보면 해방후 이와같이 변하여 온 北韓의 産業立地政策과 立地構造의 특성에 따라 工業地帯의 변모는 動乱의 休戰을 기점으로 하여 매우 다른 様相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動乱이후 戰後復旧와 아울러 이른바 北韓을 赤化革命基地로 완성시키는데 있어서는 立地上의 経済的 不利益이나 資源의 消費도 불사한다는 政策下에 많은 立地의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방전 부터 既存되어 온 平壤, 함흥, 清津地区등 大単位의 工業

団地와 政策目標를 指向하는 手段으로서 經済的立地因子가 아닌 非經済的 立地因子에 의한 몇군데의 새로운 軍事戰略産業의 立地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奥地 山嶽地帯로 散在하도록 정하게 된것을 말한다. 이를 열거해보면 江界—満浦地区, 熙川—徳川地区, 雄基—아오지地区, 恵山鎮地区로 되어 있어 工業立地의 방향이나 構造가 무엇에 의해서 얼마만큼 어떤 工業中心으로 변모하여 왔는 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IV. 맺 는 말

北韓은 日本을 비롯한 西方으로 부터 그들의 經済発展에 必要한 機械와 技術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南北韓의 物資交易으로 平和的인 共存을 仮装한 것이 아니고 진실로 政治的 統一이전에 經済交流를 원한다면 앞서 南北韓經済構造의 豫備的 診断에서 밝혀진 差異点을 토대로 하여 살펴 보건대 南北間에 輸出入할 物資는 풍부하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 豫料되는 經済交流가 自由世界에 접근하기 위한 偽計에 불과하고 여기서 貿易利得을 얻고자 함이 아니고 오히려 政治的 宣伝효과나 国際的인 地位향상에 있다고 할지라도 經済的인 側面보다는 經済外的인 側面에서 北韓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科学的인 分析비판을 함으로써 対北韓政策을 立案, 実践해 나가는데 南北韓接触에 따른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役割이 심대함을 窺知할 수 있다.

南北間의 接触에 따른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交流에 대비하하여 協商과 活動이 国民精神과 国家安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것에 대한 그릇된 認識에서 야기될 악영향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여 国民에게 올바른 認識과 与論을 올바르게 이끌어 対北交流의 接触에 있어서 精神的인 総和가 先行이 되고 나아가서는 交流자체가 経済政策에 있어서 하나의 変数로 도입하여 福祉志向的 経済体制의 강화를 위한 産業合理化 再編成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不正腐敗의 一掃, 貧富의 적심한 格差, 農村開発이 불가피한 과제로 제기되어야만 한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自由経済体制를 유지発展시키고 그 体制의 統一의 기반을 닦기 위해 계속 反共闘争을 강화해야 하는바 그러나 時代状況에 알맞도록 대담하게 정비 개혁되어야 한다.

반듯이 現実認識을 바탕으로 한 科学的인 立証이 있어야 하며 「이데오르기」的인 対立에 있어서 우리는 科学技術이 만들어 낸 최신의 成果를 活用하여 참신한 方法, 참신한 感覚을 가지고 共産体制와의 対決이나 交流에 임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自由의 小児病에 걸려 共産勢力을 과소 평가해서도 안되며 동시에 우리는 自信喪失증에 걸려 共産党이라면 넘어놓고 무서워 하는 誤謬를 범해서도 안된다. 우리도 成長했지만 北韓도 成長했다는 認識위에 北韓의 현실적인 実体와 実像을 파악하고 接近하기 위하여 産業視察団이나 資源調査団의 交流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

南北 接触에 따른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에 関한 研究

— 社会·文化的 側面에서 —

洪 德 昌

I · 序　　論

1970年에 있었던 朴正熙大統領의 8·15宣言은 이民族에게 曙光을 비춰주게 되었다. 1945年 8月15日 南北으로 分割되고 6·25의 처절한 動乱과 休戰後 계속적으로 対立하여오던 이民族이 이 宣言을 계기로 崔斗善総裁의 南北赤十字会談提議가 나왔고 調節委員会를 構成하는等 괄목할만한 民族 再結合에로의 成果를 걷을수가 있게 되었다.

確実히 南北調節委員会의 構成은 解放 以後 이民族이 이룩한 最大의 수확이며 이委員会가 마련한 七·四共同宣言은 戰争으로 빠져들어가던 이民族을 일단 정지 하게하고 정신을 차리게한 宣言이라고 解釈할 수 있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6,25를 발발하였던 北韓은 休戰直後부터 戰争準備에 광분하였으며 최근에는 金日成으로 하여금 戰争準備가 完了되었다고 宣言하기에 이르렀었다. 월남전쟁이 종식된後 世界의눈은 그다음의 戰争의 폭발은 韓国이 될 가능성이 짙다고 보고있었다. 이 때에 調節委員会가 構成되었으니 이 民族은 勿論 全世界의 여론은 일단 안도의 숨을 쉬게 되었다.

그러나 이 民族과 全世界가 지켜보는 南北会談은 七,四共同宣言을 発表한것 以外에 아무런 進展이 없다.

그것은 南韓의 純粋한 人道的 문제의 提議에 対하여 北韓은 38,000名의 細胞工作員을 南派할 것을 提議하고 있으며 南韓은 相互間 感情이 충돌되지 않는 非政治的인 문제인 經済, 社会, 文化

分野의 交流를 提議한데 對하여 軍備縮少나 政治的問題를 다루자고 맞서고 있는데서 이다. 再言하면 이 民族이 모처럼 이룩한 南北会談은 벌써부터 어려운 難関에 부딪힌 셈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하여 보면 北韓側의 그러한 提議에 우리는 새삼스럽게 놀랄것도 증오할것도 없다. 南韓側이 提案한 人道的問題란 北韓側으로선 生理에 맞을理 없다. 그들의 人道란 아들이 父母를 고발하고 그리하여 아들이 애비를 칼로 찌를수 있게 하는 길이 人道的 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란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処地이다. 이와같은 무리들과 우리는 会談을 하고있는 것이다. 이 会談은 많은 難関을 극복하여야 하며 統一의 目的까지는 長期間이 所要될 것이 예상된다.

本論의 主題는 産業視察団과 資源調査団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北韓은 이調査団의 交流를 거부하고 政治的 문제부터 다루자고 提議하고 있다. 그런故로 視察団이나 調査団의 문제分析은 会談自体의 全体過程中에서 파악되어야 할것이다. 이와같은 観点에서 本論은 全体会談 過程中의 社会 文化 部分을 検討하였으며 이検討를 통하여 視察団과 調査団의 問題를 検出하려 하였다.

社会 文化部分의 検討는 첫째 南北会談이 成立한 要因検討와 둘째 異質文化의 접촉을 위한 会談方向을 検討하기 위하여 機能主義 理論을 検討하였다. 셋째 統一을 위한 単一文化圏 形成을 検討한 後 그結果를 가지고 調査団이나 視察団의 問題를 検討하였다.

Ⅱ. 南北会談 成立의 要因

1970年 8月 15日 朴正熙大統領은 北韓에 対하여 첫째, 폭력中止. 둘째 戦争準備中止. 셋째 平和的 競争을 提議한바 있으며 北韓은 多幸히 이提議를 받아들여 現在까지의 会談이 進行中이다.

그러면 朴大統領이 이提案을한 根本 原因은 무엇이며 北韓의 金日成이 이案을 받아들여 会談에 臨하게된 原因이 무엇인가를 究明할 必要가 있다. 왜냐하면 이 会談이 成立된 原因을 究明함으로서 우리는 会談全体의 両側의 戦略이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南韓의 立場

첫째, 第2의 6.25防止였다. 8.15宣言 当時만 하여도 北韓이 계속적으로 무장간첩을 南派하고 있었으며 南北의 감정은 極限상황에 이르고 있었다. 6.25의 처절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民族의 良心的 指導者라면 어떤 指導者라도 分明히 터지고말 戦争을 座視할수는 없는것이다. 大戦의 폭발은 이民族全体의 멸망을 의미하며 国際列強의 祭物로 이民族을 바치는것을 意味하기 때문이다.

둘째, 統一을 위한 南北会談은 늦을수록 어렵다는 생각에서 였다. 南北의 再結合은 全民族이 다 願하는 課題이다. 南北의 분단은 이民族의 願에 依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였다. 그런데 일단 分割된 後로는 極端的인 異質体別로 굳어져가고 있었다. 이 양体制가 더 굳어가기 前에 会談을 하는것이 有利하기 때문이다.

또한 南韓의 立場으로선 아직 民族的 良心을 지니고 있을 北韓의

40 代 以上의 住民들이 生存해 있을때가 有利하며 더구나 軍備拡充에만 몰두하느라고 一般経済水準이 낮을때 再言하면 北韓이 軍事面 以外의 分野가 南韓보다 弱勢할때가 有利하기 때문이다. 이때가 有利하다 함은 北韓住民들이 南韓을 往来할적에 事実上 北韓이 더 発展했다고 느끼게되면 共産主義理論을 良心的으로 正当視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国際情勢의 영향에서이다. 닉슨 닥토린発表後의 世界 情勢는 모든 世界弱少国家에게 自覚을 주게되었다. 여기서 韓国도 例外가 될수는 없는것이다. 美国은 亜細亜民族主義를 強化시키는 길이 共産主義를 이기는 戰略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共産主義 위협국가들로 부터 손을 떼려고 한다. 이政策은 다른 말로 表現하면 •너이들問題는 너이들끼리 해결하라• 라는 政策이다.

또한 •우리에게 찬성하지 않는者는 우리에게 反対하는者•라는 존 포스터 덜레스의 外交政策은 케네디政府以来 지속되어 왔으며 「対話 • 緊張緩和 • 協助」라는 戰略으로 表現되게 되었다. 이것이 「対話와 対決」이라는 概念으로 틀지우게 만든것이다. 対決은 冷戰体制라는 발판을 딛고 충돌로 쏠리게 되었으며 現実的 多難한 現状을 克服하기 위한 次元의 表現이 対話였던 것이다. 닉슨의 北京 및 모스코바 訪問은 対話의 表現이였으며 이와같은 対話政策의 물결은 韓国民族에게도 밀려왔던 것이다.

넷째, 쏘련政策을 変化시킨 自由化의 물결은 北韓에서도 可能하다는 展望에서이다. 힛틀러의 우상화를 무색케하는 金日成 唯一思想의

確立과 그지속은 外部世界와의 完全차단 下에서 可能한 政策인 것이다.

만약 会談의 進展과 南北韓 住民의 交流가 成立하게되면 어떤 政策으로도 自由化의 물결은 防止할수가 없는 것이며 北韓政策은 必然的으로 変化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 北韓의 立場

첫째, 南韓赤化의 道具로 삼자는 것이다. 北韓에서 試図했던 武装간첩에 依한 게릴라戰 거점確保政策의 失敗는 그들 自身이 認定하게 되었으며 다른 政策을 강구할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다. 이때에 会談 提議가 온것이다. 再言하면 힘 아니 들이고 게릴라戰 거점確保를 해보자는 意図에서 였다.

둘째, 南韓의 民心을 교란하자는 心算에서였다. 武装간첩의 南派는 結果的으로 南韓国民의 反共心 및 軍事力만 增強시킨 것을 알게 되었으며 「民族의 統一」이라는 감상적感情을 불러 이르키며 따라서 美軍의 韓国주둔이 民族統一의 장해물이라 선전하여 反美감정과 韓国政府不信을 造成하려는 計劃에서였다.

셋째, 그以上 지탱할 수 없는 軍備增強에서 였다. 世上이 다 아는 바와같이 北韓의 経済 6個年 計劃은 完全히 失敗했다. 그原因은 소련의 원조 감축과 軍備增強으로 其他 部分의 経済基礎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経済的 또는 北韓住民의 民心동요等 절박한 現状을 打開하기 위해서는 南韓과 会談을 함으로서 南韓의 発展에 쐬기를 박을 必要를 느끼게 되었을 것이다.

넷째, 会談을 利用하여 外交面에서 地位를 向上시키자는 心算에 서였다. 会談開始 以来 北韓은 外交強化에 必死의 努力을 다하고 있는것은 이 까닭이다.

다섯째, 外交의 強化는 UN에 南北韓을 加入하게 하고 聯邦制를 実施할 目的에서이다. 이政策은 会談에서 直時 南韓赤化가 不可能할 경우 平和분위기를 造成 南韓을 弱化시키기 위하여 永久分割政策으로서의 復合国家論 또는 聯邦制 国家論을 들고 나올것이 分明하다.

Ⅲ. 統一을 위한 南北韓 異質文化의 接触方向

1. 南北韓 会談戦略 概視

1971年 8月12日 崔斗善 韓赤総裁의 赤十字会談 提議 以来 比較的 順調롭게 進行되어오던 南北会談은 南韓의 人道的 赤十字会談 추진에 対하여 北韓이 38,000 名의 事実上의 共産党員을 南派할것을 提議한 事実과 調節委員会 会談에서 南韓이 経済 文化的 交流를 提議한것에 北韓이 軍備縮少를 提議함으로서 会談은 事実上 정돈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미 南北会談 成立要因分析에서 밝혀본 바와같이 南北은 서로 相反된 会談의 目的을 갖이고 있었다. 北韓은 그間의 会談 損益計算書를 検討하였음에 틀림없을 뿐만 아니라 会談 発展으로 因하여 UN에서 韓国問題가 討議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는 事実과

直接交流단계에 들어 가게되면 그로 因하여 들어날 北韓의 허점과 住民의 民心동요 等을 고려치 않을 수 없게되었다. 이것이 北韓에서 会談을 정돈상태에 몰아넣은 原因인 것이다.

以上의 会談経過로 보아 그間의 両側 会談戦略은 다음과 같이 概視할 수 있다.

(A) 南韓側 戦略

南韓側으로서는 絶対 会談이 결열되어서는 아니되며 長期間 会談 및 交流를 함으로서 民族性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民族的 良心을 소생시킬 時間이 必要하게 되었다. 따라서 民族的 良心의 회복은 理念이나 思想的 対決을 초래할 問題는 피하고 民族的 文化를 접촉 시키므로서 外国의 마술적 思想에(唯物史観) 미쳐버렸던 이들을 原来 지녔던 이民族의 혼을 되찾게 치료해 보자는 戦略이였다. 그런故로 長期的 段階的 会談戦略이라 概観할 수 있다.

(B) 北韓側 戦略

北韓으로서는 会談이 長期化할수록 不利하다고 認識하게 되었다. 그理由는 長期 会談은 北韓住民에게 北韓의 諸 弱点을 들어내게 되고 北韓住民의 民心동요를 우려하게 되었다. 特히 人的 物的 交流는 自由化물결의 伝達道具가 된다고 判断하게 되었다. 따라서 北韓으로서는 経済 및 文化的인 접촉은 피하고 政治問題를 취급 함으로서 北韓의 諸弱点을 덮을수가 있는 것이며 可能한限 北韓住民이 思想的 마취제 약효가 없어지기 前에 会談을 完結할 必要性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런故로 短期的 速決主義的 戦略이라고 概観할 수

있다.

그러나 北韓에서 直時 会談을 파괴하려 하지는 않을것이다. 왜냐하면 北韓住民의 民心동요 要因만 除去된, 再言하면 經濟 文化的 접촉만 막을수 있는 会談이라면 長期化한다 하여도 損害될것이 없으며 오히려 利益을 볼 可能性이 많다고 判断할것이기 때문이다. 그利益이란 北韓의 国際的 地位向上과 U N 加入 可能性을 비롯하여 会談을 利用 原来 作成했던 会談戰略을 南韓에서 実現해볼 機会가 올지도 모른다는 心算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注意해야 될것은 会談의 계속이 北韓에 절대 不利하다고 認識될 때 北韓은 会談결열의 責任을 南韓에 뒤집어 씌우느라 광분하리라는 事実이다.

以上과 같이 南韓側의 非政治的 接触으로 부터의 段階的 会談戰略과 北韓側의 直接 政治 軍事的 解決에 依한 速決的 会談戰略을 検討할때 南韓側은 D. Mitrany 敎授가 提唱한 機能主義理論에 根拠한 会談戰略이라 볼수 있으며 北韓側은 이理論을 반박한 I. Cloude 敎授의 理論에 根拠한 会談戰略이라 概観할 수 있다.

2. 機能主義理論과 南韓側의 議題内容

(A) D.Mitrany 敎授의 機能主義 理論

機能主義理論은 D.Mitrany 敎授가 1943年 • A Working peace system• 에서 처음 提唱하였었다. 이理論은 世界 또는 어느 地域을 하나의 새로운 社会로 統合시켜 共同社会로 発展시킬 수 있다는 理論이며 強力한 共同意識 (Sense of solidarity) 과 共同利益을 그 바탕으로 하고있다. 이理論은 現在의 U. N 經濟社会理事

会 結成에 그터전을 提供한 理論이기도 한것이다.

이理論의 要旨는 国際協力方式에 있어 政治的인 問題와 非政治的인 問題를 区分하여 非政治的인 問題를 国際 協力事業으로 삼자는 理論이다. 非政治的인 問題를 取扱할때 相互国들이 協力하게되며 容易하게 事業을 展開할 수 있으나 어떤 事業을 이方法으로 協同運営할 경우 그 効果가 다른 分野의 事業으로 移転될 수 있으며 나아가서 自己国家에 対한 忠誠心과 国際共同事業에 対한 協同心은 처음에는 共存되다가 漸次的으로 国際共同 機構에 対한 忠誠心까지 造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過程을 거처 無意識中에 한 主權国家의 統治權이 조금식 침식 당하며 따라서 両国家業務를 調節해야할 必要가 생기게되고 結局 綜合的 政治權力(A General Political Authority)의 形成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学説은 다음과 같은 根本仮設에서 出発한 学説이다.

① 人間은 合理的 存在이며 根本的으로 戰争과 対立보다 調和와 平和를 希求한다는 点.

② 戰争의 原因은 社会的 経済的인 問題에서 発生되며 文盲退治 疾病豫防 貧困一掃에 依하여 戰争은 豫防된다는 点.

(B) Hass 教授의 新機能主義理論

D.Mitrany 教授理論을 더욱 発展시킨 것이 Hass 의 新機能主義理論이다. Hass 는 1964年에 「Beyond the nation state : Functionalism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이란 著者를 出版하였으며 하바ー드大学의 J.S.Nye 教授를 비롯한 많은 지지자를

얻게되어 新機能主義를 創設하게 되었다. 이理論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原則的으로 政治的인 問題와 非政治的인 問題로 区分되나 非政治的인 接触으로 関係가 好転되면 政治的인 問題까지 拡大될수 있으며 非政治的 접촉에 있어서도 그 接触하는 人間이 専門知識 및 技術을 겸비한 政治人일때 더욱 効果가 있다.

② 따라서 이理論의 가장 重要部分은 伝播機能 (Spillover Capacity)의 発生理論이다. 이理論에 依하면 共同事業을 하는 동안 協同機構에 対한 忠誠心이 発生하는 것이 아니라 連鎖 反応 効果로서의 伝播機能이 発生한다는 것이다.

③ 国際共同事業이 進展되기 위해서는 그事業의 課題가 明確할 수록 좋다는 것이다.

(C) 南韓側 議題提案 内容과 機能主義理論

現在까지 南韓側이 提案한 議題提案 内容을보면 人道的問題 政治 文化의 交流 問題等 非政治的 問題이며 政治的問題는 피하고 있는것을 알수있다. 이것으로서 南韓側은 D.Mitrany 理論에 根拠한 提案方式이라 볼수있으며 非政治的인 交流를 발판으로 自由化물결이 北韓에 퍼진 다음 政治的 問題를 取扱해도 極限的 충돌을 피할수 있다고 생각될때 政治問題를 取扱할 것이라고 仮定하여 본다면 Hass 의 伝播機能을 그腹案으로 갖인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3 . 反機能主義理論과 北韓側의 議題内容

(A) I.Cloude 敎授의 反機能主義理論

D.Mitrany 敎授理論에 反対하는 学者는 Inis Cloude, Jr 敎授이다. 그리하여 理論展開上 筆者는 이것을 反機能主義理論이라 부르고 싶다. Inis Cloude 敎授의 理論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① I.Cloude 敎授는 D.Mitrany 敎授의 仮設理論부터 否定한다. 即 人間의 合理性 理性的 伝移, 協同精神을 의심하고 있다.

② 国際紛争의 原因은 経済的 社会的 要因에서 起因된것이 아니며 世界経済의 不安은 戦争의 所致라는 것이다.

③ 国際 協力事業에 있어 政治와 非政治問題를 分離시킬수 없으며 설사 그分離가 可能하다 하여도 政治問題가 解決될 때까지 非政治問題는 뒤로 미루게 될것이라는 것이다.(註1)

그러나 Cloude 敎授의 反機能主義 理論의 提唱에도 不拘하고 世界各国은 機能主義理論 및 新機能主義理論에 依拠하여 많은 国際協力事業을 発展시킨 事実을 우리는 알고있는 것이다.

(B) 北韓側의 議題 提案 内容과 反機能主義理論

北韓側은 南韓의 非政治的 問題提案을 거부하고 政治的 軍事的 問題를 提案하고 있다. 애당초 李厚洛委員長과 金日成과의 対談에서 金日成이 経済交流를 提案한 事実은 널이 알려진바다. 또한 南北調節委員会에서는 経済 文化的 交流問題를 合意본것도 다 알려진 事実이다. 그러나 北韓은 現在에와서는 再言하면 막상

経済 文化的 交流의 実現단계에 이르러서는 이를 거부하고 軍縮問題나 政治問題를 고집하고 있다. 이와같은 事実로 미루어보아 北韓側은 I.Claude 의 反機能主義理論에 依拠한 議題提案方式이라 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c) 北韓外交面으로 본 接触方式

北韓은 1973 年 2月9 日을 기해 全世界 64 個国에 外交使節団을 파견하는 大規模巡訪外交를 展開하고 있다. 그 外交対象国 64 個国은 自由陣営 6 個国 中立陣営 47 個国 共産陣営 11個国으로 되어 있다. 64 個国 外交使節団의 構成은 長次官級 以上의 現職 高位級 人物을 団長으로하는 16 個의 経済代表団과 1 個의 芸術団을 파견하고 있다.(註2)

이들의 外国과의 접촉形式을 보면 特히 自由陣営이나 中立国等政治体制가 相異한 国家들과의 外交접촉에서 経済 및 芸術접촉으로 外交의 실마리를 풀어가고 있다. 例컨대 英国이나 伊太利와 접촉하기 위하여 萬寿台芸術団이 投入되고 있으며 印度와는 文化芸術 体育交流를 強化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스웨덴等 처음 접촉하는 나라와는 段階的 접촉으로서 通商問題協議 및 貿易協定等経済的 接触으로 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事実은 北韓도 처음 接触하는 国家와는 政治的 問題보다는 経済的 文化的인 非政治的인 接触이 相互間 友好造成에 成果가 있다는 即, 機能主義가 成果가 있다는 것을 認定하고 이를 実践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4. 南北会談 展開方向

(A) 南北会談 앞으로의 展望

南北会談은 北韓側의 故意的 방해로 답보상태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北韓이 72年 9月에 日用品 工業省을 新設한것과 対日 「프렌트」 輸入이 増加하고 있는 事実에 注目해 볼만하다. 이와같은 事実은 現在의 저조한 北韓의 生活相을 改善하고 南北会談을 展開해 보려는 意図라고 解釈할수도 있는 것이다. 結局 南北会談은 相当期間 이러타할 成果없이 空転될 것이다. 이와같이 別 成果없이 空転되던 会談은 새로운 段階에 들어가게 될것이다. 그 새로운 段階란 南韓側의 人道的문제, 社会, 文化 経済的問題를 받아드리는 条件으로 南韓에 致命的이라고 判断아니되는 政治問題를 提示할 可能性이 있다. 例컨대 非政治的 社会団体(그들은 순수한 社会団体가 없지만)의 統合案, 非政治的 国際機構에 北韓이 加入하는데 南韓側이 찬성하는案 等이다.

(B) 南北会談 展開의 根本原理

南北会談 展開의 根本原理는 한쪽이 무조건 항복을 하지않는 限 쉬운問題부터 漸次로 어려운問題로 段階的으로 発展해가는 機能主義的 原理 以外에는 存在할 수 없다. 勿論 D.Mitrany 理論이나 Hass 理論 그대로라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変形시킬수는 있을 것이다. 原則的인 原理는 変化시킬수 없는 것이다.

外交活動에 全力을 다하고 있는 北韓은 종처럼 会談을 파괴해버리지도 않을 것이며 会談이 進行되는 期間은 戰争을 도발하지도 못할것이다. 会談이 進行되는 동안 언제가는 人的・物的・交流는 이루어지게 될것이며 그리하여 自由化의 伝播機能은 強하던 弱하던 北韓에 스며들 것이다. 이것의 축적이 이民族 統一의 거름인 것이며 그렇고 統一은 成就될수 있을것이다. 再言하면 戰争상태에 있는 월남会談方式이나 現状을 固定시키려는 独逸会談方式은 우리会談에서 適用될 수 없는 것이다.

Ⅳ. 単一文化圈 形成을 위한 戰略

1. 北韓文化의 本質및 文化政策

南北韓의 完全한 統一을 成就하기 위해서는 政治的 行政機構的 統合만으로서는 不可能한 것이며 南北韓의 現存的 異質文化가 単一文化로 統合되어야 完全한 統一이 成就될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必히 成就시켜야할 単一文化 構成을 考慮할때 먼저 檢討해야할 部分은 北韓文化의 本質이다. 南韓은 8.15解放後 이 民族 本来의 伝統的 文化를 계승, 自然的 発展을 하여 왔으나 北韓에는 事実上 이民族의 伝統的 文化는 파괴当하였으며 쏘비에트에서 이식해 들여온 唯物史観을 바탕으로한 急造된 異質文化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北韓의 文化本質및 그政策을 檢討하려 한다.

(A) 北韓文化의 本質

北韓의 文化란 政策수행의 한 武器이며 手段으로 取扱되고 있는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文化란 金日成을 정점으로한 支配集団의 意図的 発展에서 얻어진 所産인 것이니 이와같은 文化의 本質을 要略하면 다음과 같이 提示할수 있다.

① 唯物論的 価値體系

② 金日成 唯一思想

③ 南韓赤化의 革命思想

④ 反美책동을 위한 民族主體思想

① 唯物論的 価値體系

北韓은 文化를 文化만의 限定性이나 独自性을 否認하고 文化의 機能을 政治나 生産手段으로 認識하고 있다. 그리하여 첫째 文化는 社会主義 思想體系를 現実生活에 確立시켜주는 보장수단이며, 둘째 文化는 個人的 次元에서 集団的 次元으로 思想體系를 이전 시켜주는 伝換手段이며, 셋째 生産能力을 革命的으로 発揮시켜주는 촉매수단이며, 넷째 모든 住民에게 社会主義 思想을 中心으로 団結을 연결시켜주는 結合手段이라는 것이다.

② 金日成 唯一思想

北韓文化의 核心的 要素는 金日成 唯一思想이다. 이思想은 単純한 支配의 神話를 創造하기 위한것 만이 아니라 独裁體制에서 必然的으로 発生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必然的 所産인 것이다. 이 金日成 神話는 儒教思想인 君師父一體의 論理를 活用한 것이니 首領으로서의 金日成 民族指導者로서의 金日成 어버이로서의 金日成으로 부르게 하고 있다. 이리하여 北韓社会의 現実的 모든 生活과 価値를 金日成에게 集中시키고 있는것이다.

③ 南韓赤化의 革命思想

金日成 唯一思想의 実際的 目標는 모든国民을 南韓침략을 위한 革命戦士로 만드는 일이다. 이革命思想은 一般的인 観念으로 부터 実際生活의 밑바닥까지 침투되어 있는 것이다.

④ 民族主體思想

北韓에서 主張하는 民族 主體思想의 理論은 이民族이 統一

이 아니되는 原因은 南韓에 주둔하고 있는 美軍때문이라는 것이다. 故로 美軍을 추방하는 길이 完全統一의 길이며 그事業을 自己들이 수행하고 있으니 自己들은 民族主體思想을 確立했다고 主張한다. 民族主體思想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者의 理論이지만 이것이 北韓 住民 모든生活의 根幹을 이루고 있으니 이民族 再結合의 암적 존재이다.

(B) 北韓의 文化政策

政治및 生産의 手段으로 誤用하고 있는 北韓의 文化政策은 芸術이나 宣伝에 限定된것이 아니라 모든政策이 文化政策인 것이다. 全政策의 文化政策中 : 本論에서는 家族政策 青少年 社会化政策 歴史 教育政策 国語政策, 大衆芸術政策을 検討하였다.

① 家族에 対한 文化政策

北韓에서는 南韓에서와 같이 家族을 血縁集団이나 愛情集団 또는 伝統的인 文化의 歴史的 伝承機関이라는 観念을 否認하고 있다. 따라서 家族이란 革命思想 実現의 実習場이며 生産의 最底単位로서만 認識되고 있다. 그런故로 北韓에서는 祖上숭배는 봉건잔재라 비판当하며 結婚도 愛情에 依하는것이 아니라 革命戦士의 結合으로 党이 관여하고 있다.

이와같은 家族制度의 確立을 위하여 公民証制度및 人民班 五戸담당제를 実施 모든 住民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② 青少年 社会化 政策

이政策은 사노청이나 조선소년단 組織을 通하여 実施하며

모든 北韓의 青少年을 그들 父母로부터 이탈시키고 철저한 革命戰士로 養成하는 政策이다.

이와같은 青少年 教育政策은 어린이의 순박한 感情을 利用하여 그들의 家庭을 감시하게 하고 철저한 思想注入을 함으로서 그들의 후계자를 양성하는 政策인 것이다.

③ 歷史教育政策

北韓의 歷史教育은 唯物史觀의 定立에 그 초점을 두고있다. 그런 까닭에 資本主義의 必然的 붕괴를 유물변증법에 依하여 論証하며 共產主義 政權의 不法的 構成을 合理化 및 正当化하고 있다. 또한 金日成의 우상화를 조작하기 위하여 가공적 人物과 事実을 날조하고 실제화 하는데 歷史教育政策의 主眼点을 두고 있다.

北韓에서 造作한 民族史라는 것은 三国時代 新羅의 仏教에서 원효대사의 理論을 唯物論的 思想이라고 하고 民族的 唯物思想의 根拠로 提示하고 있으며 高麗朝에서는 서경덕의 思想 李朝에서는 実学思想을 唯物論的 立場에서 다루었고 1930年代 以後는 金日成의 抗日 빨지산 活動만이 이民族의 正統歷史라는 것이다. 이民族의 순수한 歷史와 伝統을 이와같이 変造시켜 마치 이民族이 唯物論을 위하여 存在한것과 같이 歷史를 꾸며 教育하고 있는것이다.

④ 国語政策

国語政策은 言語政策과 国語政策으로 区分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言語政策이란 標準語를 平壤語를 使用하며 対話式 言語와 高揚된 빠른 言語를 장려하며 차분하고 情다운 言語는 禁하고 있다.

이는 言語로서 民衆을 흥분시켜 일터로 몰아내는 政策이다.

国語政策이란 金日成 唯一思想을 침투시키는 政策으로서 例를들면 中学校 3学年 国語内容은 全體 55個 単元中 金日成 唯一思想 内容이 31単元 革命思想 고취内容이 12単元 南韓政府 비난内容이 10単元 其他 2単元으로 構成되어 있는것이다. (註3)

⑤ 大衆芸術政策

北韓의 大衆芸術이란 社会的 意識의 한 形態이며 政治的 経済的 토대를 確立하기 위한 思想的 武器이다. 따라서 北韓의 文芸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것과 같은 순수한 文芸는 存在하지 않으며 오직 住民들에게 社会主義 生活을 実現시키며 民族主義的 思想을 改造시키는데 活用되고 있는것이다.

이 事実은 党에서 1964年以后 芸術主題를 革命主題 30% 共産軍의 英雄性을 난조한 戰争主題 30% 人力動員을 고취한 主題 20% 南韓을 비참하게 묘사한 統一主題 20%로 割当한것으로도 알수있다.

이와같이 党에서 文芸政策을 계획하면 職業同盟 사노청 및 各団體에서 執行하게 되는데 그 基本 運営単位는 末端에 組織된 各種 文芸써클이다. 現在 北韓에는 約 20名 程度로 構成된 各種 文芸써클이 62,800個나 있으며 총 1,252,000名이 登録되어 있다. (註4)

2 • 北韓文化의 虛点

北韓의 文化는 8•15 以后 쏘련文化를 이식해 建造한 異質的 文化로서 우리民族의 伝統文化를 否定하고 強制的이고 非自然的으로 形成한 文化이다. 어떤文化나 強制的으로 形成될때에는 그內部에 갈등을 면할수 없으니 그理由는 非自然的 人造的 造作過程에는 그 効果의 限界性이 内在하기 때문이다. 北韓에서 아무리 強制的이고 計劃的으로 그 갈등을 防止했다 하더라도 表面上으로는 노출되어 있지 않으나 그 内部에는 人間社会인 以上 많은 모순과 갈등현상을 면할수는 없는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北韓文化의 虛点이라 볼수있으며 이 虛点을 우리는 文化 統合에 最大로 活用해야한다. 왜냐하면 그虛点속에 바로 이民族 原来의 文化感情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A) 社会主義 理論이 지니고있는 虛点

社会主義 理論은 過去 4000年의 이民族의 伝統的 歷史를 한꺼번에 허물어 버리려는 理論이기 때문에 自然히 現実을 無視한 理想的이고 空想的인 理論을 提起하게 된다. 이것이 理論인 以上 現実과 完全무결하게 一致될수는 없는것이다. 北韓에서 계속해서 施行한 숙청이나 住民登録事業은 이와같은 理論에 対한 住民의 反抗을 意味하는 것이다. 아무리 철저하게 支配한다 하여도 많은 信者가 地下에서 宗教活動을 하고 있는것이다. 이事実은 쏘련에서 거의 信者가 없는줄 알았는데 1946年 부활절에 모스코바에서만 200萬 以上의 信徒가 부활제에 참석한 事実로 알수있다.

(B) 計劃自體가 지닌 虛点

強制的으로 文化를 構成하기 위해서는 現実을 無視한 非自然的인 計劃이 立案될수 밖에 없다. 이와같은 計劃은 自然히 計劃을 위한 計劃으로 전락하게 되며 그와같은 計劃이 連発的으로 下達하니 住民들은 無感覚하게 된다. 北韓의 6個年 経済計劃이 失敗한 原因도 이런데서 찾어봐야 할것이다.

(C) 人間心理 自體가 지닌 虛点

北韓의 住民들도 一般人으로서의 心理와 品質을 가진 存在인것이다. 人間은 本来 自己意志에 依하여 生活하기를 願하며 自由를 願한다. 27年間 밀폐된 社会에서 一方的 희생만 強要받고 살아왔으니 모든面에 消極的이고 만성적인 心理로 전락하였음이 分明하다. 支配者들이 아무리 훈장이다 英雄칭호를 난발한다 할지라도 人間本来의 心理作用은 막아낼수 없는 것이다.

(D) 世帯間의 意識격차에서 오는 虛点

現在 北韓은 철저한 青少年 社会化政策에 依하여 養成된 40代未満의 世帯만이 적극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実情이다. 40代以上의 世帯는 아무리 새로운 思想注入을 하여도 이미 伝統文化로 틀지워진 人間들이기에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다. 여기에 40代를 경계로 심한 감정적 思想的 対立이 보이지 않게 形成되어 있다.

(E) 自由化 思想에 対한 虛点

北韓住民이 組織的이고 강압적인 탄압에 못이겨 끌려가고 있으나 그들은 4000年의 찬란한 文化속에서 삶을 영위해온 이民族文化의 얼이 심어져있는 韓国民族이다. 만약 이들이 自由世界가 누리고있는 自由生活게 어떤 形式으로라도 接하게 되면 元来의 自己로 되돌아 오는것이다. 그와같은 実証이 쏘련이나 中共에서 이미 나타났던 것이다.

(F) 会談以后 나타난 北韓文化의 変化

数次에 걸처 南北의 代表들이 서울과 平壌을 相互訪問하는 동안 北韓에는 漸次的으로 여러面의 変化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変化는 첫째 北韓住民의 옷의 빛갈이 漸次 多様해지고 있으며 둘째 生活必須品으로서의 「푸랜트」를 더욱 많이 日本으로부터 輸入하고 있으며 세째 1972年 9月에 北韓에서는 日用品 工業省까지 設置하기에 이르렀으며 넷째 暴力革命위주의 極左 冒険主義가 숙으러진 現象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諸変化는 우리가 바라는 自由化의 물결이 이미 일기 시작한것으로 解釈할수 있으나 北韓의 기존戦略으로서의 赤化統一의 根本的 政策이 変化한 증조는 없다. 이들은 앞으로 自由化 防止에 最大의 노력을 할것이 予想되며 外交強化에 全力을 다할것이 予想된다.

3. 単一文化圏形成을 위한 단계적 戦略

(A) 南北韓 文化統合의 大前提

文化의 統合이라는 것은 어떤 形態的 制度的 物質的 統合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無形的 思想的 感情的 統合을 意味하게 된다. 그런故로 南北韓의 文化統合은 南韓人의 感情에다 唯物論思想을 合처서 하나로 만들수는 없는것이다. 原来 唯物史観은 다른 文化와의 타협의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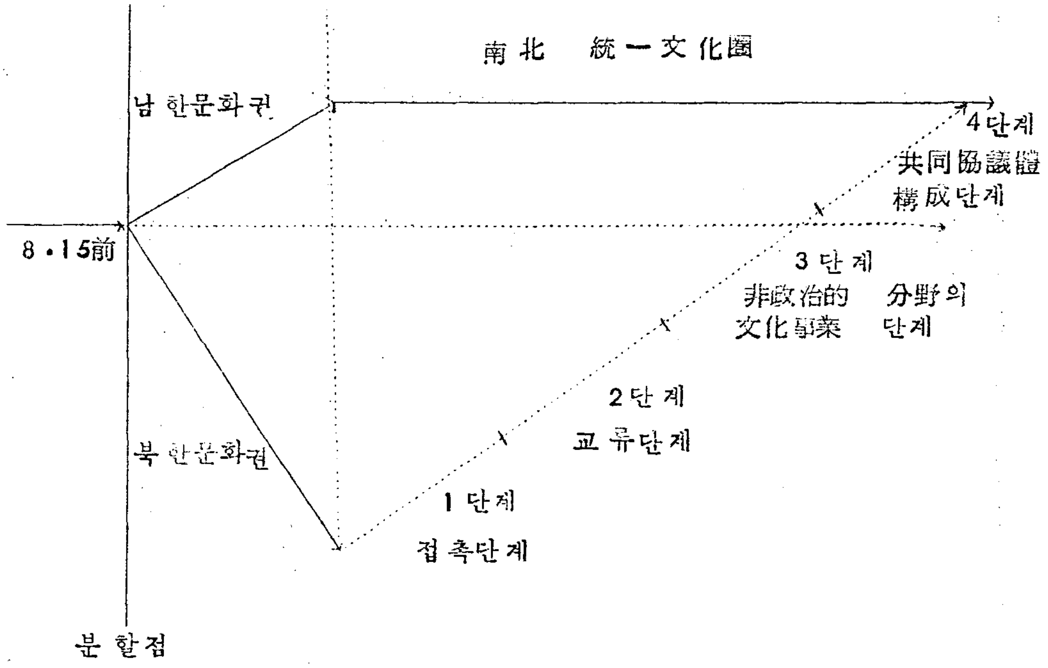
그런故로 統一에 対備한 単一文化圏 形成의 기반은 原来의 이民族이 지녔던 観念 習慣 生活様式에 자리잡아야 할것이다. 北韓에는 이미 우리 伝統的 文化가 存在하지 않는다고 기술한바 그속에서 우리文化를 찾을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南韓은 原来 이 民族이 지녔던 文化에 의거하여 自然的으로 発展하여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統一에 대비한 文化構造의 原型은 南韓의 文化에서 求할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根幹으로 統一文化를 구축해야 함은 再論의 여지가 없다.

이와같은 理由에서 自由化의 물결을 北韓에 일게 하는것은 即 北韓에 南韓文化를 외연화 시키는 것은 이 民族統一의 大前提가 되는것이다. 勿論 이것이 쉬운일은 아니며 많은 難関이 予想되나 어려와도 그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作業에 適用될 方法이 다름아닌 단계적 접촉이며 両文化 접촉으로 発生되는 마찰을 最少限으로 줄이자는 理論이다.

(B) 統一文化 形成을 위한 段階的 発展模型

統一을 위한 南北韓 異質文化의 接近과 그段階的 発展모형은 다음과 같이 四段階로 区分하여 提示할수 있다.

統一文化圈 形成模型



① 一段階 (접촉단계)

一段階는 現在의 段階로서 両側 会談代表가 往来하며 접촉하는 단계이다. 우리는 이 접촉단계를 通하여 이미 많은 成果를 본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交流를 위한 合意에 到達하고 있지못하고 있으니 좀더 접촉단계가 계속될 것으로 予測된다.

② 二段階 (교류단계)

어느程度 접촉이 끝나면 어떤 形態이든 交流단계에 들어가게 될것이다. 이段階가 本論에서 検討하려는 視察団및 調査団이 交流되는 단계이다.

이 段階에서는 政治性이 全혀 없는 交流에서 시작하여 점차로 交流를 拡大해야 할것이다. 再言하면 순수한 学術交流에서 始作하여 漸次的으로 交流를 拡大해 나가야 할것이며 마찰이 아니될것을 골라서 進行해야 할것이다. 그러나 相当한 알륵과 난관이 수반될 것이 予想되며 両側은 한쪽의 손실을 다른데서 메꾸어 가며 進行시킬것이다.

③ 三段階(非政治的 共同文化事業 段階)

二段階 交流에서 얻은 経験과 信念을 가지고 극단적 충돌을 相互間 피하면서 非政治的인 共同事業을 展開하는 段階이다. 그 共同事業이란 例컨대 共同 관광사업, 共同으로 医療事業體 構成, 共同體育팀 構成, 共同무용팀 構成, 事実만을 報道하는 共同新聞社 設置, 非武装地帯의 共同活用, 共同기상관측事業 等이다.

여기서 附言할것은 二段階와 三段階는 경우에 따라서는 同時에 이루어질수도 있다.

④ 四段階(各分野別 共同協議體 構成 段階)

三段階를 극복하게 되면 時日도 相当히 経過하게 될것이다 이때에는 本格的으로 北韓文化를 解體시키는 各分野別 共同協議體가 構成되어야 한다. 例컨대 韓国史의 共同편찬 및 그教育事業 韓国語의 統一事業 南北 各級学校 教育課程의 再編成 等이다.

以上과 같은 段階的 接触과 交流에 依하여야만 文化의 完全統合은 이루어지게 될것이다. 이와같은 段階的 統合以外의 方法은 結局 民族的 大混乱만 야기하게 될것이다.

V.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의 課題

産業視察団과 資源調査団의 限界를 本論에서는 文化産業 視察団 및 文化資源 調査団으로 限定한다. 그런故로 経済的인 視察団이나 調査団은 原則的으로 論外로 하나 結局 그와같은 視察団이나 調査団도 거의 같은 性質을 지닐것으로 전망한다.

이 調査団이나 視察団 構成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文化変形 過程에 있어 第二段階의 文化接触 原理에 依하여야 하니 再言하면 機能主義의 接触및 交流方式을 原則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故로 非政治的 分野부터의 調査団과 視察団 交流가 이루어져야 하며 漸次的으로 共同事業段階로 移行되게(三段階事業) 그터전을 提供하는데 目的이 있다.

1. 各分野別 活動展望

資源調査団 및 産業視察団을 構成하고 交流하는데 있어 各分野別 展望은 다음과 같이 予想할수 있다.

(A) 政治 軍事分野

調査団및 視察団을 構成하고 交流하는 分野中 가장 어려운 分野이다. 北韓에서는 생트집을 잡기위하여 提議할 可能이 없지 않으나 不可能한 일이다. 설사 交流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사사건건 충돌과 비난만 発生할 것이다.

(B) 経済分野

北韓의 金日成은 이후락 위원장에게 명태잡이 및 철광사업

까지 提議한바 있으나 이제는 시치미를 떼고 있다. 그와같은 事業을 하려면 먼저 調査団이나 視察団의 交流가 先行되어야 되는데 이것의 構成및 交流可能性은 現在로선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経済分野의 視察団이나 調査団 構成은 어느程度 다른分野의 交流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不可能한 일이다. 왜냐하면 両側은 모든 産業이 곧바로 全體 国力에 直結되기 때문에 서로 보이기를 꺼려할것이다. 모든産業이 南韓보다 低調한 北傀이 그것을 들어내 노출시키려 할理는 없는 것이다. 가령 軍需工場이 아닌 어떤 生必品工場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相対側이 봄으로서 労動者의 技術, 士気는 勿論 그와 関聯分野의 産業까지 分析할수가 있는것이다. 그런故로 経済部分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다.

(c) 社会 文化分野

모든 分野中 가장 可能性이 높으며 어느程度 会談이 進展되면 直時로 非政治的인 文化面의 視察団및 調査団이 構成되고 交流될것이다.

南北会談은 休戦会談도 通商会談도 아니다. 이는 오직 民族的良心을 새로 되살려 내는 作業이지만 北傀이 이를 기피할것이니 相互無害하고 共同利益을 追求하는 方向으로 나갈수밖에 없다. 그와같은 事業은 外国손님을 유치할수 있는 共同 관광사업이나 순수한 学術交流부터 始作해야 할것이다. 第二段階 事業이나 第三段階 事業의 大部分은 이와같은 作業으로 全部 메꾸게 될것이다.

2.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 構成에 関한 問題

会談進行 段階로 보아 視察団이나 調査団이 交流된 다음 共同事業段階로 넘어간다고 가정할때 視察団이나 調査団 構成은 미리 準備와 計劃이 있어야겠다. 交流段階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学者와 専門家가 必要하게 되고 共同事業을 始作하게 되면 더욱 많은 人的動員이 予想된다. 그러나 지금부터 全部 그人員을 선발 訓練할 수는 없은즉 各分野및 種目別로 最少限 3名의 担当要員을 訓練할 必要가 있다. 그 3名은 첫째 事務局의 担当者이다. 交流및 事業이 拡大되면 必然的으로 独立的인 事務局이나 調節委員会 산하로서라도 事務局을 設置하게 될 것이다. 3名中 1名은 그 分野의 事務職員을 養成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순전히 視察이나 調査를 하는 学者나 専門家를 意味한다. 그分野에 関하여 北韓의 研究를 시키며 우리것과 미리 比較도 함으로서 交流가 이루어 졌을때 最大로 活動하게 訓練시켜야 한다. 세째는 共同事業이 成立되었을때 南韓側의 責任者를 意味한다. 이 사람도 専門家이지만 좀처럼 北韓人士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実業家라야 한다.

以上과 같이 各種目別로 三個分野에 担当者를 最少限 一名식이라도 訓練하였다가 会談進展 상황을 보아 더욱 人員을 増員하여 訓練을 하여야 할것이다.

3. 交流및 共同事業 種目

文化交流나 文化共同事業은 統一事業의 中核事業이다. 따라서 그 交流나 共同事業은 一時에 全分野에 걸처 이루어져서도 아니되

며 그中에서도 段階的 順序가 있어야 할것이다. 그 順序決定의 原側은 機能主義 理論에 立脚해야 함은 勿論이지만 第一段階中에서의 順序는 다음과 같이 提示할수 있다.

① 学術交流 (文化財 言語学 地質学中)

② 医師 交流

③ 言論人 交流

④ 體育人 交流

⑤ 各種 芸術人 交流

⑥ 宗教人 交流

⑦ 各分野의 共同 文化事業

(A) 学術交流

学術交流란 순수한 少数의 学者만으로 構成되어 相互交流를 하게 된다. 例를 들어 南北에는 많은 文化財가 散在해 있다. 이것에 関한 研究를 위하여 学者가 交流되니 一般住民은 하등의 영향을 받을理 없다. 또는 地質学이나 言語学의 学者가 相互接触 및 交流하여 우리나라의 方言이나 地質을 研究하니 両側이 다 共同利益을 보게 될것이다. 勿論 이와같은 研究를 위하여 文化財 調査団 地質調査団 言語調査団 観光調査団 等을 점차로 構成해야 할것이다.

(B) 医師交流

医療事業은 思想에는 別 영향을 미치지 않는 分野이다. 그런故로 相互間 相対便의 医術交流를 비롯하여 그視察및 調査団을

交流하는것도 좋을것이다. 勿論 이것을 通하여 漸次로 共同 医療事業의 기초를 確立하게 하여야 할것이다.

(C) 言論人 交流

相互間 記者를 交流하고 言論機関을 視察하게 되면 相当한 発展을 보게 될것이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좀처럼 応하지 않을 可能性이 있다. 다만 報導의 限界를 定하고 事実記事만 取扱할수 있는 共同経営新聞社를 서울과 平壤에 設置할것을 目的으로 調査団이나 視察団이 交流될수도 있을것이다.

(D) 體育人 交流

우선 国内 親善競技를 目的으로 體育人을 交流하는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제 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에 부닥치게 된다. 両独의 경우를 생각하여 보면 전망이 대단히 좋지 않다.

(E) 各種 芸術人 交流

무용단의 交流를 비롯하여 各種 文芸実態를 알아보기 위한 調査団과 視察団이 構成될수 있다. 그러나 北韓은 순수한 文芸는 存在하지 않으며 그것이 곧 政治内容인 故로 좀처럼 応할리 없다. 各分野別 作家들과 相互交流및 討議하는 程度는 이루어 질수도 있을 것이다.

(F) 宗教人 交流

北韓에는 宗教가 있을理 없다. 그러나 그들의 소위 憲法에는 宗教의 自由가 있다고 規定하였기 때문에 宗教가 存在한다고

宣伝은 하고있다. 이分野도 좀처럼 応할리 없으며 모든 敎会나 사찰이 없어진 오늘 視察이나 調査를 하게할理는 없다.

(3) 共同文化事業

以上과 같이 視察団이나 調査団을 交流하게 되면 그 視察이나 調査한 것에 依하여 各分野別로 共同文化事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勿論 視察이나 調査와 병행하여 成立될 分野도 있을수 있는것이다. 더구나 金剛山 共同開発事業은 両側이 다 같이 願하는 事業인지도 모른다.

Ⅵ. 結 論

1. 南韓은 戰爭防止와 南北韓 信頼増進을 目的으로 会談에 臨하고 있으며 北韓은 会談을 赤化統一의 道具로 삼으려하고 있다. 또한 그들은 国際 地位向上에 活用하는데 利用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会談은 좀처럼 進展하기도 어렵지만 파괴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2. 南韓은 機能主義理論에 依하여 会談을 끝까지 밀고나가야 하며 現在의 会談 정돈상태는 両側의 양보와 접근으로 극복될수 있다. 따라서 南韓側은 長期的 漸進的 会談戰略을 밀고있으며 北韓側은 短期的 政治的 会談戰略을 밀고 있다.

3. 北韓에는 이미 이民族의 伝統的 文化는 存在하지 않으니 統一大業은 南韓文化의 北韓에의 외연화에서 可能하며 이戦略은 접촉段階 交流段階 非政治的 共同文化事業段階 政治的 共同事業 段階로 区分하여 展開시켜야 한다. 北韓의 文化는 各種 文芸活動을 党에서 計画하여 政治및 生産의 武器로 사용하고 있으나 理論面에서 計画面에서 人間心理面에서 또는 自由化에 対한 対応策에서 많은 虚点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이点을 活用 現在 北韓의 異質文化를 漸次的으로 파괴해야 할것이다.

4. 産業視察団 및 資源調査団 構成 및 交流는 오직 文化部分만에서 可能하며 各分野別 各 種目別로 最少限 3名식으로 訓練하여 事務局이나 調査나 共同事業體 構成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 3名을 核心으로 交流가 成立時 더 많은 専門家를 訓練시켜야 할것이다.

調査団이나 視察団의 交流分野는 그順序別로 보면 첫째 文化財 言語学 地質学等의 순수한 学者로 構成되는 学術交流 둘째 医師交流 셋째 言論人 交流 넷째 體育人 交流 다섯째 各種 芸術人 交流 여섯째 宗教人 交流 일곱째 金剛山 共同開発을 비롯한 共同文化事業이 될것이다.

註

(1) 대한민국 국회사무처. 국회보 126호 機能主義理論과 南北結合 1972.9. PP. 77 ~ 87.

(2) 北韓研究所 北韓 6月号 北韓레이다 1973.6. PP.198 ~ 203.

(3) 국토통일원 국토통일 4월호 남북한 가치구조의 통합을 위한 서설 1972.4. P,70.

(4) 北韓研究所 北韓 3日号. 文芸政策과 大衆芸術 1973.3.1 PP 276 ~ 284.